# 제 1 절

#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 1-1. 기업 1,000개 유치 성공적 마무리 및 2,000개 유치 추진

#### 가. 기업 1,000개 유치 시책 성공적 마무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기업 1,000개 유치」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기업 2,000개 유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해였다. 도와 시·군의 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096개 기업, 8조 9천억원을 유치하고 42천명의 고용효과 거양 등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동 기간 기업 596개, 투자액 51조 2천억원, 고용 75천명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 가공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지역 전략기업 유치를 통하여 전남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0년 한해 동안 406개 기업, 5조 5,135억원을 유치하고 고용 14,700여명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하였다.

한편 道는 2010년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기업 1,000개 유치시책 추진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 거양한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다. 최우수 시군에 순천시, 장성·신안군, 우수시군에 여수시, 영광·고흥군, 장려 광양시, 무안·완도군이, 우수 읍면동기업유치위원회 표창에 순천시 별량면, 광양시 광양읍, 곡성군 삼기면, 보성군 보성읍, 함평군 함평읍, 영광군 대마면이 영예의 전남투자유치 대상을 수상하였다.

## 나. 기업 2,000개 유치 총력추진 기반 조성

道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과 200만 회복을 위한 기업 2,000개 유치시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0. 7. 9. 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도·시군 투자유치 총력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군간 협조체계 강화, 투자환경 조성 공동대응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10. 7. 29. 도내 295개 읍면동 기업유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2,000개 유치 범도민 다짐대회」 개최하여 범도민 총력추진 동참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기업 2,000개 유치시책의 본격추진을 위해 도·시군 전공무원 투자유치요원화 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 본청 실국원, 시군 실과소 등 투자유치 목표부여 등 총력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내 개별입지 229개소 D/B 및 실시간 제공시스템구축, 소규모 지역특화임대산단 및 공장 조성 등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적기 적소의 입지제공 시스템 구축과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22개사 131억원), 창업투자보조금 (65개사 80억원), 신규투자고용보조금(45개사 24.7억원) 등 각종 투자유치 보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하였다.

투자기업 합동상담회 개최(2회 92개기업), 투자기업 PM보고회 개최(2회 452개기업), 투자실현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개최(6개사), 직원모집지원(3개사 260명) 등 투자협약(MOU)기업 지원강화로 실현율 제고 등 기업 2,000개 유치시책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기반구축에 힘써오고 있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유치총괄팀장 김범수,
제조업유치팀장 안기홍, 레저산업팀장 주상욱,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이행권, 김종현

## 1-2.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지원

### 가. 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전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 심의기구인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 회의를 년 5회 개최하였다. '10. 4월에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5월에는 2009 투자유치 유공 성과금 지급안을, 7월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계획을, 8월과 10월에는 각각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발굴・제안을 위해 구성된 전남정책위원회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다.

### 나.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 76명을『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 자문관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 다. 투자유치보좌관 운영

경제전문가인 민간기업의 중견간부를『투자유치보좌관』으로 위촉(금융감독원 1명, 삼성전자 1명)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전략 및 경영마인드를 공직사회에 파급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기업 투자정보 수집, 금융(PF) 지원,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1-3. 투자기업 지원 및 전남 투자여건 홍보강화

### 가. 투자기업공동지원협의회 구성 및 합동상담회 개최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투자협약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조기 투자실현을 위해 2009. 6월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분기별 투자기업 합동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지원협의회는 지역금융권인 광주은행, 농협, 기업·산업·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라남도교육청 및 용역지원단체인 전남건축사협회 등 17개 기관단체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업들이 투자실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여신 지원과 신용보증, 업체들이 필요한 우수기능인력 알선, 각종 정책자금 안내, 건축 법무 부동산 등 각종 용역사항을 지원한다.

道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2회에 거쳐 공동지원협의회 위원과 투자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투자기업 합동상담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4월 제1차 상담회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39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144건(금융지원 55, 신용보증 27, 정책자금 19, 고용인력 11, 용력수수료 지원 32)을 상담 지원하였으며, 2010년 10월 제2차 합동상담회는 53개 기업이 참여하여 218건(금융지원 88, 신용보증 29, 정책자금 39, 고용인력 23, 수수료 등 용역지원 39)을 상담 지원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유치총괄팀장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김판길, 정무혁

### 나. 투자유치 보조금 및 기반시설비 지원

수도권, 영남권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35개기업(개소) 25,201백만원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보조금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 22개기업 13,113백만원, 창업투자 65개기업 8,011백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45개기업 2,47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의 입주 및 기업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3개소 1,605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유치총괄팀장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정무혁

## 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전남에 대한 일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유망업종, 투자유치 전략산업별 동영상, PPT, 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거나 기존에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Up-Grade하여 각종 투자 설명회 및 투자상담을 위한 타겟기업 방문시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업 2,000개 유치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효과가 큰 TV광고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전남의 투자환경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비교우위의 자연자원·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사업·투자여건 등 전남이 투자적지 임을 국내외에 공격적으로 집중 홍보하였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경제·뉴스채널인 mbn과 YTN TV광고와 KTX 차량내 영상홍보광고를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여 녹색의 땅 전남의 투자환경과 투자 최적지 전남의 비전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홍보강화를 위해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홍보광고(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개월간)도 병행하였다.

### 라. 2010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가

2010년 9월 15일 대구 EXCO에서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0 지역발전 주간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VIP를 비롯한 관계부처, 경제단체, 지자체 및 초청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옥모형의 전라남도 전시홍보관은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등 주요 전략산업과 F1,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전시관내 F1 머신 모형과 태양광모듈, 풍력발전 모형 등은 방문객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초청 1:1 투자상담의 성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기업 9개 기업이 전라남도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광개발 투자분야 등에 대해 밀도있는 상담을 하는 등 해외기업인들에게 전라남도의 투자매력과 투자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유치총괄팀장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김판길

##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2-1.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사후관리 전담자(PM)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기업유치 T/F 구성 및 잠재 타깃기업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유치전략을 마련 전방위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도 252개 기업에 12조 2,970억원의 국내외 투자유치(MOU) 성과를 거뒀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 소규모 투자설명회 및 개별IR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24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12조 5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외투기업 유치에서는 해외투자설명회 및 국내 초청 현장설명회로 9개 기업과 MOU를 체결 2,91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특히 수도권기업 유치의 불모지였던 우리 도가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원자재 활용 기업을 타깃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16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유치의 새로운 가능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녹색성장산업의 최적의 투자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43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입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 2-2. 국내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열악안 도내 산업구조의 고도·계열화를 위해 핵심전략산업을 분야별로 집중 유치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였다.

### 가.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유치

특수조선 및 기자재, 해양레저조선 및 장비업체 등 조선산업관련 4개기업(한국쇼트 등)과 844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나. 친환경 농수산식품기업 유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의 중심지로서 친환경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기능성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42개 기업(사조그룹 등)과 4,429억원의 MOU를 체결하였다.

### 다. 전자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유치

우리도의 미래성장산업인 전기전자, 부품소재, 신소재, 화학산업 등 관련 기업 50개 기업 3조 4,144억원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대하였다.

### 라. 친환경 녹색산업 유치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최적의 투자환경을 활용한 투자유치에 전념하여 신재생에너지기업 40개사(48,650억원), 우드펠릿 연소기기업체 3개사(510억원), 친환경 바이오기업 16개사(990억원)를 유치미래 녹색성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마. 수도권기업 등 대기업 투자유치

전남의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한 수도권 기업 16개(2,325억원)를 유치하여 수도권기업 유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엠아이텍 등 의료기기 업체 4개사가 녹십자, 생물의약센터 등이 소재한 화순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권역별 산업집적화 및 특화발전의 기틀

도 다져나가고 있다.




기업유치과 과장 김채홍, 유치총괄팀장 김범수,
제조업유치팀장 안기홍, 레저산업팀장 주상욱,
담당자 조영식, 이행권, 장수훈

### 바. 5GW 풍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2008.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및 2009. 5월 5+2(호남)광역경제권 개발전략 발표에 따른 서남해안 풍력사업 허브구축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에서 서남해안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토대로 대규모(5GW) 내수시장 창출 프로젝트로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풍력프로젝트는 전남 서남부 도서·해안·해상지역에 5GW 발전단지와 2,314천㎡(70만평)의 설비전용산단 및 R&D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고용 25천명, 연간지방세수 641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 4월까지 4차에 걸쳐 총 49개기업, 16조 3천억규모의 4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9월 민관합동'전남 5GW 풍력발전협회'를 창립하여 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향후 전국적인 해상풍력의 메카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투자개발과 과장 박창훈,
5GW풍력산업유치팀장 박종필, 담당자 최준기, 김형균

### 사.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실현

대상 지역이 목포·무안·신안 및 영암·해남·진도 일부지역에 이르는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이 2008. 9월 확정됨에 따라 2008. 12월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치고 서남권 신발전종합계획 및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다. 구체적 사업실현을 위하여 2009년부터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춘 발전촉진지구 7개지구와 타법에 의해 실시계획을 진행한 지구로써 투자유인이 필요한 투자촉진지구 3개지구 등 총 10개지구에 대해 2010년 12월 정부에 지정 신청하여 2011년부터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남권 신발전 지역에 2020년까지 인구 60만명 규모의 자족형 중핵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투자개발과 과장 박창훈, 중남부권팀장 김기수,
담당자 김동진, 심정식, 김이수

### 아. 전남조선타운 조성사업

신안군 압해면과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총 면적 1,611만㎡, 투자비 2조 5,271억원 규모의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20여개 투자참여 업체와 투자협약을 실현하였고, 2008년에는 신안과 고흥에 개발사업 추진 전담 법인(SPC)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9월 고흥과 2009년 8월 신안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 착수 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직접고용 4만명과 생산유발 8조 2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개발과 과장 박창훈, 조선해양산업유치팀장 이평근,
담당자 박성우, 이병석

## 2-3.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가.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지역 실무 IR 활동

2010. 1. 19 ~ 1. 23일까지 중국 요녕성 심양과 상해에서 투자설

명회 및 개별기업 방문 등 투자유치 IR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양은 2009년 전남을 방문했던 물류,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애고과무유한공사 등 4개기업에서 전남 투자의향을 표명하였고 상해는 중국 온주, 복건, 호북상회 등 화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남도 투자시찰 희망 등 관심을 이끌어 냈다.

2010. 10. 27 ~ 10. 30일까지 절강성 영파시와 상해에서 투자설명회, 투자자문단간담회, 개별상담 등 투자유치IR 활동을 전개하였다. 절강성 민영기업가협회 투자설명회에서는 남원그룹 대표의 전남도 방문 및 투자협약 체결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 나. 이스라엘 실무 IR 활동

2010. 3. 6 ~ 3. 17일까지 외교통상부 주관 이스라엘 공동 IR을 참가하여 태양광 모듈생산 Zenith Solar, 풍력기어제작 IQ Wind Ltd,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 ETV Motors 등 3개 타겟기업과 활발한 투자상담을 벌이고 전남도 진출을 제안하였다.

### 다. 유럽(벨기에, 프랑스, 독일) 실무 IR 활동

2010. 3. 14 ~ 3. 21일까지 벨기에 뷔뤼셀, 프랑스 깐느,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하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섬개발 등 전남도의 주요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한편, F1 자동차 경주대회, 2012세계박람회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특히 벨기에 방문시에는 정밀화학기업 알버말사를 방문하여 최종 투자처를 한국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프랑스 깐느 부동산박람회에서는 부동산관련 기업들에 대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집중 소개하여 관심을 고취시키고 독일에서는 로이파나대학연구소 및 TUI관광그룹과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친환경 관광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라. 홍콩 실무 IR 활동

2010. 4. 18 ~ 4. 20일까지 홍콩을 방문하여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인 장강실업홀딩스와 섬개발 및 리조트 개발에 대한 투자방안을 협의하였고 부동산박람회 주최사인 Reed MIDEM사와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남도의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 마. 대만 실무 IR 활동

2010. 5. 25 ~ 5. 27일까지 풍력발전기 제조사 I-WIND Cell Power,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사 Arima ECO Energy 등 대만의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6개사를 만나 활발한 투자상담을 벌였다.

### 바. 투자유치 및 우호교류를 위한 도지사 미국순방

2010. 9. 26 ~ 10. 3일까지 투자유치, 수출 통상협력 증진,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도지사 미국순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순방기간 중 마리나, 리조트 개발 Contender사와 30백만불, 신재생에너지부품기업 Gexpro와 30백만불, 조류발전 Verdant Power와 20백만불 등 총 80백만불의 MOU를 체결하였고 섬개발 DPS, 발전케이블 AMSC, 바이오매스 Rentech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시니어타운 개발과 운영사인 Farnworth사는 도내 은퇴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국내 합작 가능기업과 공동 타운 개발 및 참여의향을 밝혔다.

수출・통상협력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기업인 Melissa's와 나주배 유통센터를 통한 미주지역 안정적 판로확보 및 제값받기를 추진키로 하였고 LA 한인상공회의소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내 판매 확대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키로 협의하였다.

애리조나주와는 투자, 신재생에너지,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협력을 체결하고 애리조나주립대와는 영어캠프에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영어캠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유치과 과장 김채홍, 외자유치팀장 선경일,
담당자 김병성, 서명섭, 박한석

## 2-4.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50만불이상 64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간부공무원 담당제 실시로 24개 업체 27건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처리하였다.

## 2-5.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 우리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 활성

화를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과장 김채홍, 외자유치팀장 선경일,
담당자 김병성, 서명섭, 박한석

#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 3-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 본격 시행

###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여건 및 추진상황

연평균 15℃의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인근 1,965개의 아름다운 섬, 6,419km에 이르는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선,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의 최근거리 등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 8월 25일 정부로부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12월 삼호·구성·초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08년에는 공청회, 중앙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초송지구는 간척지를 기업도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8년 12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비서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초송지구 사업시행사가 부동지구로 옮겨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키로 협의함에 따라 부동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한 후 2009년 6월 3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F1 경주장 건설을 주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삼포지구는 2009년 3월 4일자로 개발계획을 신청하였다.

삼호·구성 등 2개 지구는 3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09년 2월 19일자로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 삼호지구 450억원, 구성지구 900억원의 법정자본금을 모두 확보하고 기업도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 8일에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구성지구는 2009년 12월 30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2010년 1월 13일에 승인 고시되었고 삼포지구는 2010년 4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 나. 개발 예정지내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면적 49.0㎢ 중 간척지 부분이 41.6㎢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지구를 제외하고 삼포지구(4.20㎢), 삼호지구(8.44㎢), 구성지구(15.94㎢) 간척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업도시개발부지 활용에 동의함으로써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 구성지구는 2010년 1월, 삼포지구는 2010년 10월 개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과 7월 3개지구에 대한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구성지구는 2010년 9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되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예상평가액보다 낮게 나오자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을 통해 감정평가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간척지 양도·양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구성지구의 평가금액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지구는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14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간척지 활용 문제로 농식품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이금하

## 3-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시행전담법인(SPC) 설립추진

### 가.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크워크가 구성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2006년

10월 투자유치 컨설팅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가능기업을 파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Man To Man식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2월 14일 미국계 기업 가이딕 코리아와 2,0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You & Partners, 유토라이프, 미국 GDP, 사우디 FAL그룹, SPG사, 블루넷/월드라이트, 건원그룹, Lippo 그룹, 호주 Village Roadshow사 등을 상대로 중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말에 부동지구 사업자인 대한도시개발의 유동성 위기로 송천지구(15.5㎢)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GS건설, 삼부토건, 한백R&C, 엘드건설, 시공테크, 서천건설, 래영건설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통신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TrussNet 그룹 정보를 파악한 후 코린타이 회장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 2008년 7월 4일 총투자금액 45억달러에 이르는 투자계약을 체결, 2009년 9월 3일 개발전담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증액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1일에는 건원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및 동남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등과 투자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관광컨퍼런스와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경부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투자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유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된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공동 참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그 동안의 문체부와의 공동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3. 16 ~ 3. 19까지 도 단독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J프로젝트를 포함한 우리 도 주요 국제행사 등을 함께 홍보할 수 있었다. 또한

2010.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테마파크 박람회에 참가하여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에 대한 투자가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일 12일까지 홍콩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알리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 나. 전담법인별 자본금 확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4개 전담법인이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게 된다. 4개 전담법인이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도시조성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2010년말 기준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주)는 450억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900억원, 썬카운티(주) 230억원, KAVO는 6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 다. 탄소제로도시 건설 추진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08년 3월 20일 도와,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7개 사업시행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무안기업도시 탄소제로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도에서는 목포대학교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각 지구 및 건물 등에 대한 탄소발생량과 탄소절감 목표치,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구체적『전략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08.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2009년 7월『관광

레저도시 시설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2010년 5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전략마련 컨설팅』 내용과 『관광레저도시 도입 시설 매뉴얼』을 바탕으로 兩 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태일, 보상지원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병섭, 나영수, 서영배, 박우주, 정 석

## 3-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자족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개발공사에서 2006년 2월부터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약 100㎢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2007년 1월에 해남군 산이면사무소와 영암군 삼호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개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7년 9월까지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한도시개발(주), 썬카운티(주), KAVO(주) 등 5개의 법인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담법인(SPC)별 개발구역과 면적(총면적 87.92㎢)을 확정하고, 해외 용역사가 기 계획한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SPC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레저시설들을 접목시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왔으며, 개발계획이 완료된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는 2007년 12월 26

일에 삼포·부동지구는 2009년 3월 5일 및 6월 3일 각각 <표 2-1>과 같이 해당 SPC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에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 2-1> 개발구역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내역**

| 지구별 | 개발면적 (㎢) | 계획인구 (명) | 도시조성비 (억원) | 시 행 자(SPC) | 승 인 신청일 |
|---|---|---|---|---|---|
| 삼호 | 9.20 | 10,000 | 4,996 | 서남해안레저(주) | '07.12.26 |
| 구성 | 21.87 | 18,300 | 8,953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07.12.26 |
| 부동 | 14.2 | 10,000 | 4,947 | 썬카운티(주) | '09. 6. 3 |
| 삼포 | 4.3 | 10,620 | 4,025 | KAVO(주) | '09. 3. 4 |

서남해안레저(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호지구는 The Care City (건강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허브단지, 에너지 체험시설, 영상휴양단지, 테라피센터, 바이오 R&D단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성지구는 The Refresh Green City(녹색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테마파크, 월드푸드빌리지, 남도음식문화촌, 박물관, 바이오에너지파크,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골프장 등을 개발하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 골프장 운영 전문업체로 구성된 썬카운티(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동지구는 The First Sun Lake City(호반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워터파크, 마리나클럽, 승마클럽, Wellness Resort, 테마박물관, 친환경R&D연구센터, 아시아PGA본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07년 신청한 3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공청회 및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 협의를 실시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간척지 협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당초 2008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도에

서는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간척지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BH 대책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①삼호·구성지구를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하고 ②간척지를 기업도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초송지구의 SPC인 썬카운티(주)가 주 참여회사인 대주건설의 신용도하락과 유동성위기로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대한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던 부동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썬카운티(주)는 2009. 6. 3일 부동지구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F1경주장이 건설되는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2009. 3. 4일 신청되었다.

삼호·구성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과 2010년 1월 13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였고, 2011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1단계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포지구는 2011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부동지구는 2011년 하반기까지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 검토 실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계획단계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 모색 및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2006년 6월 착수하여 2007년 3월 준공하였다.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는 2007년 11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안 설정 및 초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먼저 2008년 8월 19일 삼호, 구성, 초성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2개 지구(삼호, 구성)는 2009년 11월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011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부동지구는 2009년 10월 1일, 삼포지구는 2010년 5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 추진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차로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 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면적 708.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한 결과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를 해제하였으며, 2009년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를 해제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

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을 연장(2차) 고시하여 월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이 합동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거주하여 온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태일, 보상지원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병섭, 나영수, 서영배, 박우주, 정 석

## 3-4. 앞으로 추진방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삼호·구성지구에 대해서는 2011년 하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삼포지구는 2011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2012년 상반기 착수를 아직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인 부동 지구는 2011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까지 수립,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남은 동아시아 최대의 관광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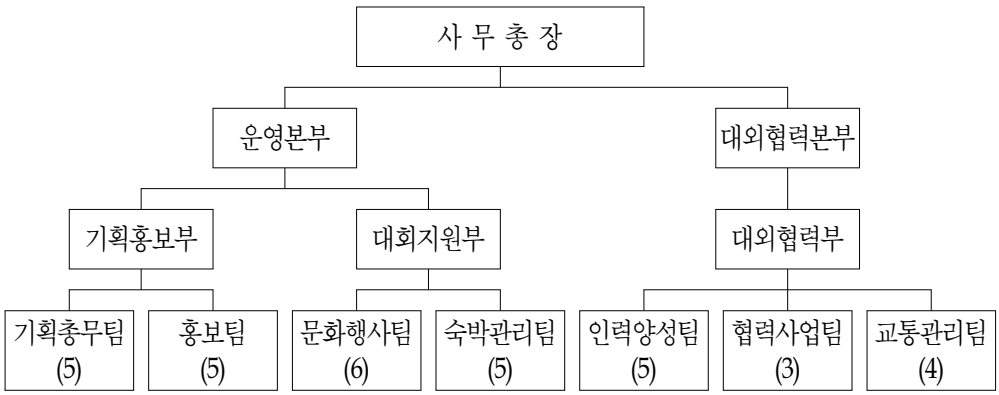
## 4-1. F1 대회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가. 조직개편

#### (1) F1조직위원회 사무처 발족

2009년 12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준비 주체인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2010년 2월 10일 F1조직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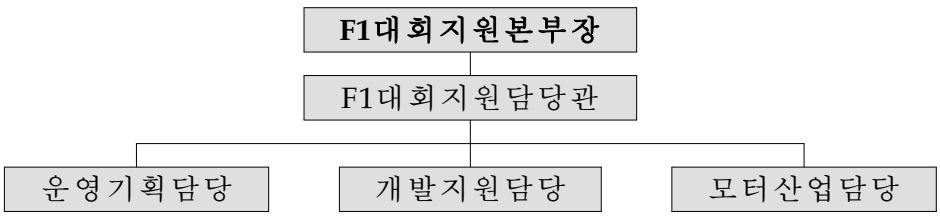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1사무총장, 1본부, 2부, 6팀,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회관계자 숙박·수송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개최 및 지원, 관람객 숙박·교통대책 마련,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문화자원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F1대회지원본부 개편

전라남도 산하 원활한 대회준비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4급 준국장 체제의 F1대회준비기획단을 3급 국장체제의 F1대회지원본부로 재편하였다.

아울러, F1조직위원회 사무처와의 기능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 홍보, 문화행사, 교통, 숙박, 대회지원 관련 기능과 조직은 조직위원회 사무처로 이관하였으며, F1대회지원본부 역할은 F1대회 국비확보 및 정부협의, KAVO 및 F1대회조직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경주장 및 SOC 건설, F1경주장 사후활용 및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 및 삼포지구 2단계개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3) 전라남도, 조직위, 대회운영기업간 역할분담

| 전라남도 | 조직위원회 | 대회운영기업 |
|---|---|---|
| • KAVO 지원 및 관리<br>• 경주장 건설지원<br>• 2단계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투자유치, PF추진<br>•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br>• 조직위사무처 업무 지원 | • 기획총괄 및 대회운영 지원<br>• 홍보 및 대외협력<br>• 문화행사 등 이벤트지원<br>• 관람객 수용대책(교통·숙박·수송지원)<br>• 치안,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br>•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br>• 대회운영 안전대책 수립 | • 대회개최 준비(대회운영 인력 양성 등)<br>• 수익사업(입장권, 스폰서십, TV 중계권 등) 및 마케팅 프로모션<br>• 경주장 건설 및 경주장 운영(사후활용) |

## 나. 재원조달

(1) 총사업비 : 5,107억원(2007~2010년)

(단위:억원)

| 재 원 | 총 계 | F1경주장 건 설 | KAVO 출 자 | 개최권료 | 운영비 | 기반시설 |
|---|---|---|---|---|---|---|
| **총 계** | **5,107** | **3,400** | **600** | **340** | **119** | **648** |
| 국 비 | **740** | 568 | - | - | - | 172 |
| 도 비 | **1,960** | 1,192 | 173 | - | 119 | 476 |
| 민 자 | **2,407** | 1,640 | 427 | 340 | - | |

2006년 한국 F1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2010년까지 대회개최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5,107억원이며, 이는 국비, 도비, 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 도비가 투입된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F1경주장건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SOC 분야이며, 개최비용 340억원은 대회운영기업에서 민자로 충당하였고, 향후에도 개최권료는 KAVO가 F1대회 개최, 티켓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2) 국도비 확보

1) 국비

당초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F1대회 관련 예산이 누락되었으나 2009년 12월 1일 국회 문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F1경주장 건설 사업비 880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예결위를 거쳐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경주장 건설비 528억원 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F1경주장 건설비로 특별교부세 40억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미확보된 경주장 건설비 312억원은 마지막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0년도 정부추경이 없었던 관계로 도비로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2) 도비

F1대회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도비는 경주장 건설비 1,192억원, 대회운영비 119억원, 진입도로·생활림 등 기반시설 476억원 등 총 1,960억원이며, 특히 대회운영비는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도비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과 과 장 박은호, F1대회지원담당 강성운,
담당자 임만규, 조영진, 송동석

## 4-2. 대회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가. F1경주장 건설

#### (1) F1 경주장 건설 규모

F1 경주장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 일원 간척지 1,853천㎡의 부지에 F1 대회 운영법인(KAVO)이 경주장 건설사업비 약 4,000억원을 조달(자본금 600억원, PF 및 국도비 3,400억원)하여 트랙, 그랜드스탠드, 피트 및 패독, 컨트럴 타워, 팀빌딩, 주차장 등이 2010년 10월에 건설되었다.

#### (2) F1 경주장 설계

2006년 7월 세계적 F1 서킷 전문설계사인 독일 틸케(Tilke)사에서 경주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경주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6년 9월부터 독일 틸케사와 국내 설계전문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정림건축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8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다.

F1경주장은 반시계방향 주행의 5.58㎞의 트랙,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서킷, 1.2㎞의 직선구간, 최고속도 320㎞, 그랜드스탠드 16,000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세계 최고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은 처마선을 살린 지붕과 봉수대 모양 등 한국적 전통미와 남도의 정취를 반영(엔트런스빌딩, 그랜드스탠드 등)하여 그 자체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3) F1 경주장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승인 절차 이행

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2007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득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의과정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면적 기준(660만㎡)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심의회(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동법시행령 부칙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기준의 50/100을 개발구역 면적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2009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관련규정상 개발구역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웠으나,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0년 4월 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과, 2010년 10월 4일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 (4) F1 경주장 건설공사 착수

본격적인 경주장 건설공사 추진에 앞서 2007년 7월 31일 F1경주장 건설공사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공사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부터 ㈜금광기업에서 F1 경주장 토목공사(연약지반개량)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6월 F1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SK건설, 금광기업 간에 토목, 건축공사 도급계약(2,438억원)을 체결하고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다.

2010년 10월 F1 경주대회에 필요한 전체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까지는 야외화장실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5) F1 경주장 건설현장 견학 실시

대회일정 확정에 따라 경주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청 직원들에게 F1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직장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F1경주장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 전 직원이 대외적으로 홍보요원이 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회 개최시까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나.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는 관람객 20만명(외국인 5만명)과 차량 1일 최대 33,000대가 경주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주장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함에 따라 사업비 312억원을 투자하여 2.8㎞인 지방도 810호선의 기존 2차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10월 준공하였다.

또한 2011년 9월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에서 경주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차로 변경공사에 238억원을 투자하여 평면교차로 2개소를 입체교차로로 변경, 경주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담당자 김범상, 조창문, 김재인

## 4-3. 2010 F1대회 개최성과

### 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1)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한국 최초로 개최되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승전 8만명을 비롯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총 16만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F1대회는 2010년 대회의 제 17라운드로서 12개팀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여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으며, 대회결과, 1위는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 소속, 스페인), 2위는 루이스 해밀턴(맥라렌 소속, 영국), 3위는 펠리페 마사(페라리 소속, 브라질)가 차지했다.

## 나.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의의

### (1)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대한 인식 증대

2010 F1대회는 단기간 동안 해외관광객 9천명과 F1대회 관계자, 레이싱팀스태프 등 외국 방문객이 전남 서남권을 방문함에 따라 지역이미지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 마련하였다.

다만, 국제행사가 처음 개최되고 많은 방문객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대회개최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교통·숙박대책 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운영상 개선방안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민이 인식하는 계기 마련하였다.

### (2) 초기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필요성 확인

F1대회는 F1경주장 건설, 개최권료, TV중계권료, 부지조성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크므로 다양한 연관산업 발굴 및 경주장 활용방안 등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에 대한 공감대 마련되었다.

### (3) 동북아 모터스포츠산업 허브구축 계기 마련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모태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모터스포츠 산업을 전남의 핵심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자동차애프터 마켓과 튜닝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모터스포츠클러스터 허브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제적 파급효과

### (1) 직접적 경제 파급효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연구한 자료(2010. 11)에 의하면,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조 200억원으로 분석되어 직접적인 지출금액 5,098억원 대비 2.02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7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41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국내 개최 타 대회 경제파급효과와의 비교**

| 구 분 | 직접 지출(억원) | | | | 경제파급효과(억원, 명) | | |
|---|---|---|---|---|---|---|---|
| | 투자 지출 | 대회 운영 | 관광 지출 | 합계 | 생산 유발 | 부가가치 유발 | 고용 유발 |
|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 4,811 | 279 | 339 | 5,099 | 10,200 | 4,373 | 9,415 |
| | | | | | (3,214) | (1,446) | (3,527) |
| 2002 한일월드컵 | 23,882 | 3,145 | 4,323 | 31,350 | 103,693 | 48,196 | 316,593 |
| 광주 개최 | 1,482 | 24 | 545 | 2,051 | (3,010) | - | (5,332) |
| 2002 부산 아시안게임 | 46,134 | 2,588 | 578 | 49,300 | (110,814) | (49,756) | (297,589) |

주) 괄호 안은 개최지역(전남, 광주, 부산)에 대한 파급효과
출처 : 2010 F1대회 개최성과 및 경제파급효과 분석(KID)

(2) 간접 경제파급효과

1) 국가홍보효과

한국 F1대회는 전세계 188개국에 중계되며 6억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F1주관사인 FOM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F1대회 결승 당일 유럽 주요 5개국 평균 시청률은 4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의 경우 일본 그랑프리보다 시청률이 높았다.

<표 2-3> 유럽 주요국가의 한국 F1대회 시청률

| 영국 BBC1 | 프랑스 TFI | 독일 RTL | 이태리 RAI2 | 스페인 La Sexta |
|---|---|---|---|---|
| 28% | 34% | 44% | 47.3% | 49.3% |

2) 기업이미지 제고효과

평균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1% 상승시키는데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5,000만달러, 2002월드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1.2% 상승, 경기 중계시간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때, 국내 10개 글로벌 기업(2010년 포춘지 선정 기준)의 기업이미지제고효과는 1,879억원으로 추정된다.

3) 수출증대 효과

기업이미지 제고효과는 국내 글로벌 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출증대효과는 기업이미지 제고효과(1,879억원)와 수출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탄력도(0.527)를 적용할 때 5조 4,905억원으로 추정된다.

(3) 총경제산출효과

결론적으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됨으로써 관람객과 참전 팀 등 해외 관계자 소비지출과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지

출 등 총 5,429.2억원의 직접적인 지출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1조 95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직접 지출 대비 2.02배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국가 홍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의 수출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브랜드가치의 상승효과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국가브랜드가치 상승효과는 국가홍보효과 1,584억원, 기업이미지제고효과 1,879억원, 기업수출증대효과 5조 4,905억원 등 총 5조 8,36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4>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총경제효과

| 구 분 | | 합 계 (백만원) | 건설투자 | 소비/운영 |
|---|---|---|---|---|
| 직접지출 효 과 | 관람객 소비지출 | 25,956 | - | 25,956 |
| | 참전 팀 지출 | 7,977 | | 7,977 |
| | 대회준비/운영지출 | 475,924 | 448,096 | 27,855 |
| | 소 계 | 509,857 | 448,096 | 61,788 |
| ⇩ | | | | |
| 경 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A) | 1,019,991 | 897,248 | 122,743 |
| | 부가가치유발효과 | 437,319 | 386,987 | 50,332 |
| | 고용유발효과(명) | 9,415 | 7,519 | 1,896 |
| 간접효과 | 국가브랜드가치상승(B) | 5,836,800 | - | 5,836,800 |
| 총경제효과(A+B) | | 6,856,791 | 897,248 | 5,959,543 |

출처 : 2010 F1대회 개최성과 및 경제파급효과 분석(KID)

## 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1) 국제적인 행사개최로 인한 시민의식 제고효과

설문조사 결과, F1대회개최로 인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 효과(개최전 100 → 140.3), 자원봉사 참여 희망 상승효과(개최전 100 →

126.5)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증진 효과

지역주민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개최로 인해 대회 관계자, 해외 언론매체, 국내외 관람객 등의 소비지출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연관산업의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1대회 개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서 개최전 100에서 개최 후 136.8로 상승하였다.

(3) 지역 홍보효과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세계 188개국에 중계되었으며, 188개국의 결승전 중계방송과 재방송(1회)에 대한 시청률을 고려하여 시청자수를 추정한 결과 **약 3.8억명~8.9억명이 시청**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와 전라남도의 인지도를 크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효과

"F1 코리아 그랑프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와 다름없는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관련 부대산업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개최로 인해 일반 대중들의 F1과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의 관심도 지수 139.6, 일반시민의 관심도 지수 122.7).

※ 2010 F1대회 준비과정 및 개최성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백서(F1조직위원회 刊)」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 과 장 박은호, F1대회지원담당 강성운,
담당자 임만규, 조영진, 송동석

## 4-4. 경주장 사후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

### 가. F1 경주장 사후활용계획 수립

영암 F1경주장 사후활용 방안은 수익성, 사회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경주장 운영법인인 KAVO측과 협조하여 연간 20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수립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경기대학교 박성준 교수팀에게 F1경주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영암 F1경주장 사후활용 계획을 2010년 4월말까지 수립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0년 10월말에 확정하였다.

사후활용 계획은, F1코리아 그랑프리 이외에 CJ Super Race, DDGT, 넥센RV챔피언십, 스피드 페스티벌 등의 국내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와 더불어 국내외 자동차회사와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신차제작 발표회 등 자동차산업의 기반시설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콘서트, 마라톤, 걷기대회, 서킷투어, 자동차 안전교육 등 다양한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중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나.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경주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의 성능 향상 및 이미지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F1서킷 인근 113,800㎡부지에 F1서킷을 활용하여 기존기술에 고성능·고효율화 및 신소재 등을 적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미엄급 고급 브랜드부품에 대한 연구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결과 국내 튜닝산업에 대한 법적규제와 음성화,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시행의 불확실성 및 R&D과제가 없고 우리 전남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F1지원법('09. 10. 9) 제정과 호남 광역권 전략산업에 동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09. 12. 15)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문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재기획하고 2011년 6. 30일에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경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자동차 부품의 고급 브랜드화를 통해 국가 기술력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강화시키고,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을 확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럭셔리 세그멘테이션을 추구하는 기업을 도입하여 종국적으로 국부를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 조성 추진

F1 대회를 비롯한 F3・Super GT・Motor GP 등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 연평균 688천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F1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미성숙 잠재시장인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F1 대회 등으로 창출될 유동인구의 고급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 모터스포츠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F1 경주장 인근에 고품격 배후도시인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란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관광, 레저, 교육, 산업, 정주 등 여러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서 4.3㎢의 F1 부지(삼포지구)에 기존 F1 서킷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지구, 관광・엔터테인먼트, 연관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시장성, 실현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F1 부지의 투자유치 매력요소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구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호텔, 리조트, 쇼핑몰, 카지노, 테마파크, 자동차 R&D 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고급 소비 및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복합레저도시인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가 조성되면 F1 경주 관람 등으로 모여든 관광객의 고급소비수요를 만족하고,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도시과 과 장 박은호,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담당자 김범상, 조창문